

“창의 컴퓨팅 입문” 팀 활동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 모음

- 미첼 레즈닉 교수의 평생유치원 책에서 “학습자를 위한 열가지 도움말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수업에서도 팀 활동할 때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모아보고, 학생들이 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어봅시다.
- 설문조사 링크 : <https://goo.gl/forms/xfuCjuQna2TxH2ti1>

성공의 경험

- 소통을 자주해야된다. 아이디어를 계속 서로에게 던진다, 내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을 때,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을 때, 팀원끼리 대화하며 모르는 부분을 해결하고 아는 부분을 합쳤을 때
- 미리 생각했던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이야기 한 후 팀원들의 의견을 합쳐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. 팀원이 아이디어를 냈을 경우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한다.
- 무엇을 해야할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했다. 아이디어가 정해지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고 각자 역할을 철저히 나누니 각자 나름대로 작품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.
- 서로의 의견을 내고 한가지 주제를 선택후 드라이버,내비게이션을 정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. 협력,신뢰,도전등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.
-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을 때,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 같다.
-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반대보다는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재밌는 작업이 나온것 같다.
- 서로 배려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니까 성공 할 수 있었던거 같다
- 다른 팀의 예시를 참고했을 때
- 남이 하길 기다리지 않고, 내가 직접 하니 성공했다
- 그냥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니 의견이 충돌하여도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더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
- 의견 중 하나만 선택 하는 것이 낫더라.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
- 많은 대화와 머리로만 생각하지말고 무작정 해보기!!!,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말고 단순하게 생각해보았다.
- 한 사람이 주 아이디어를 내고 다같이 조금씩 보태서 나은 작품을 만들어가면 작업이 술술 풀렸다
- 해당 내용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작업할 때,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을 때
-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주위도 둘러보고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고 정말 모르는게 있음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공은 그리 멀지 않게 있다.
- 서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솔직한 반응을 보였을때

실패의 경험

- 서로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때, 본인 의견 말하지 않기
- 의견 들어주지 않기, 서로 고집을 부릴 때,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
- 드라이버, 네비게이터 역할을 안하고 둘다 드라이버 역할을 할 때 실패하는 것 같아요
- 너무 욕심을 부릴 때, 생각이 너무 많다보니 하나하나 다 하기가 벅차서 실패한 것 같다...
- 아이디어가 너무 많거나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을 때
- 각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려 하면 산으로 간다
-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때
- 진행 방법을 다 모를 때, 수업시간내용을 못따라가면 아무리 해도...힘들다...ㅠㅠㅠ, 조원 중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진행하기 힘든 것 같다
- 조금의 욕심을 부리다가 시간이 부족했다.포기해야할땐 쿨하게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.
- 전날 잠을 충분히 못 잤을 때
- 아예 따로 작업을 시작 한 후에 합치게 되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다!
- 의욕이 없으면 실패하게 된다